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과 선조 임금의 갈등

해가 지고 칠혹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햇불로 밝혀져 있는 진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오니 바다의 파도치는 소리만 들릴 뿐 쥐 죽은 듯이 고요하더라. 잔잔한 파도 소리에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어쩐지 이를 보는 이순신의 얼굴은 밝지 못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나라에 충성을 바치려 했건만 죄에 이미 이르렀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려 했건만은 어버이마저 돌아가셨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으랴 어서 죽느니만 못하다.”

같은 시간, 선조는 침소에 들었으나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나라 곳곳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한양을 떠나 온지도 꽤 되었는데 언제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다. 나라 상황이 이러한데 남쪽의 바다를 지키는 부하 장군, 이순신이 선조의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다. 선조는 이순신의 꾀심함에 분이 차올라 인상을 찌푸렸다.

“이순신에게 이렇게 허다한 죄상이 있고서는 법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율(律)을 상고하여 죽여야 마땅하다.”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임진왜란 당시 전체 전함의 숫자는 물론 일본수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들은 15만 대군을 동원하였고, 처음 부산포에 상륙한 일본군 전선은 최소 700여 척이 넘는다는 보고도 있었다. 반면 조선 함대는 전라 경상 연합 수군의 판옥선이 50여척이었다. 이런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 조정은 수군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을 총괄하여 연합함대를 구성하고, 이를 지휘할 수 있는 삼도수군통제사라는 직책을 만들었다. 이 삼도수군통제사는 기존 각 도의 수군절도사보다도 높은 벼슬

1) 본 사례는 2014년 봄 학기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 수업의 일환으로 이무원 교수 지도하에 김소희, 김은중, 박병국이 작성하였다. 저작권의 위의 저자에게 있다.

로서, 1953년 전라좌수영인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임명되었다.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이순신은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적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서해안으로 진출하려는 적을 막아 왜군의 작전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이후 원균의 모함으로 삼도수군통제사의 자리에서 물러나 투옥되었지만, 원균이 삼도수군통제사의 직책으로 칠천량 해전에서 패한 후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등용되었다. 그리고 그해 명량(鳴梁)에서 12척의 전선으로 10배 이상의 적을 대파한 명량해전과, 노량 앞바다에서 퇴각하기 위해 모인 적선 500척을 격파한 노량해전을 지휘하였다.

조선의 임금 선조

선조(宣祖)는 조선의 제14대 임금(재위 1567년~1608년)이다. 선조는 1552년 11월 서울 인달방(仁達坊)에서 출생하였고, 명종이 후사(後嗣)가 없이 죽자 1567년 16세에 왕위에 올랐다. 선조는 조선 최초의 서자 출신 임금이며, 최초의 방계 혈통의 임금이기도 하다. 서자 출신이라는 점과 방계 승통이라는 점이 열등감으로 작용하여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고 일종의 콤플렉스로 작용하게 된다. 1590년, 일본의 움직임이 수상하여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통신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의 서로 다른 동향보고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1592년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이 되는 해였다. 200년간 지속되어 오던 조선의 평화는 국방체계를 무너뜨렸고, 국력에 기울여야 할 에너지는 동서분당 등 정권 다툼에 쏟아 붓고 있었다. 왜군의 한양 입성이 임박해오자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하였으며, 그 도중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분조(分朝)하고,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여 원균이 들어와 왜군 격퇴에 일조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임금 선조와 장군 이순신의 갈등

1. 새로운 전공 평가 방식

“신은 당초에 약속할 때, 비록 적의 목을 베지 않았더라도 죽을힘을 다해 싸운 자를 으뜸 공로자로 삼겠노라고 하였으므로, 힘껏 싸운 사람들을 신이 직접 참작하여 1등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당포에서 왜적을 쳐부순 장계, 1592. 6. 14)

기존에는 전투에서 적의 목을 베는 숫자를 척도로 하여 장수와 군사들의 공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새로운 전공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전공을 세워 이익을 얻으려고 탐을 내어 적의 머리를 서로 먼저 베려고 다투다가 자칫하면 도리어 해를 입어 죽거나 다치는 자가 많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포해전의 사상자 중 흥양 제 1선의 사부인 손장수는 물으로 달아난 왜적을 쫓아가서 그 목을 베려다가 도리어 적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순신은 적을 쏘아서 죽인 뒤 비록 목을 베지 못하더라도 공을 평가할 때 힘껏 싸운 자를 으뜸으로 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공 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전공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임금 선조와 갈등이 빚어졌다. 선조는 끝까지 이전의 적의 목을 베는 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식을 고집하면서 이순신의 새로운 평

가방식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체로 활로 쏘아 죽였거나 쏘아 맞힌 것을 가지고 군사 공로를 논하고 있는데, 쏘아 죽였거나 쏘아 맞혔다는 숫자로 보면 왜적은 벌써 모조리 섬멸되었을 것이다. 쏘아 죽였거나 쏘아 맞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고 공로를 논하겠는가? 나는 그것을 알고자 한다.”

선조가 이처럼 새로운 전공평가 방식에 대해 반발한 이유 중 하나는 선조의 임진왜란 당시 수군 전투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첨단 무기인 조총을 확보하고 있었고, 뛰어난 총검술 실력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에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목을 벨 수 있는 거리에서 접근전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조선 수군이 더 불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순신은 먼 거리에서 포격으로 적을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조총의 유효 사거리에 비해 더 긴 총통을 이용한 원거리 포격전을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공평가의 기준을 바꾸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선조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이순신이 올려 보낸 해전 당시의 전투상황 기록을 자세하게 적은 장계는 문신에 의해 임금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전투장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문신들이 이순신이 올려 보낸 자세한 장계를 영성하게 요약하여 기록하고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비변사는 초기에는 기존 전공 평가 방식을 지지하는 선조의 지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비변사는 해전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이순신의 새로운 전공평가 방식을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선조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였다.

“싸움터에서 목을 벤 것을 가지고 공로로 삼는다면 적을 몰아내는 데 전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의 목을 벨 때에 우리 군사가 도리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목을 벤 것을 따지지 말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조에서는 증거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적으로 적의 목을 벤 것만 가지고 공로를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힘껏 싸워 적을 꺾어놓은 공로가 분명히 있는 각 진영의 군사들에게 대해서는 비록 목을 벤 것이 없더라도 먼저 표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선조실록’ 1597. 1. 14)

이와 같은 건의는 승정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적을 쏘아 죽인 것을 가지고 군공을 논하다 보니 허위보고를 하여 턱없이 상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한 진짜 공로도 없지 않습니다. 만일 허위보고를 하여 상을 함부로 타는 문제를 결함으로 여겨서 일체 상을 주지 않기로 한다면, 그 공로에 대하여 보답함으로써 사람들을 고무 격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조실록’ 1597. 3. 23)

그러나 선조는 이러한 비변사와 승정원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적의 머리를 바쳐 공로를 확인하는 것이 이전부터 이어지던 관례라는 점을 근거로 이순신의 새로운 전공 평가 방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대체로 싸움에서 이긴 데 대해서는 반드시 적의 머리를 바치게 하여 공로를 확인한 다음에 표창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난리가 난 뒤부터는 그것을 구차스럽게 여겨 적의 머리카락이나 무기를 바치지 않고 다만 장수가 보고한 내용에만 근거하여 표창하다 보니 거짓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번에 싸움에 이긴 데 대해서는 꼭 적의 머리카락이나 무기를 본 뒤에 표창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관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각 도에 알리라고 비변사에 말해 주도록 하라.” (‘선조실록’ 1597.3.21)

“예로부터 군공(軍功)을 활로 쏘아 죽인 것으로 평가한 일이 어찌 있었겠는가. 중국에서도 반고 이후로 그런 전례가 없었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단군 이후로 역시 그런 전례가 없었다. 단지 이번에 왜적의 사변이 생겼을 때 해당관리가 그런 전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적을 쏘아 죽이는 것을 똑똑히 본 증인이 있는가? 누가 그 숫자를 계산해 보았는가?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 선심을 쓰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이란 것들은 다 이렇다. 참작해서 처리하라.” (‘선조실록’ 1597. 3. 22)

전공평가의 방식은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된 것을 이제 갑자기 없애버리게 되면, 상을 주는 규정이 앞뒤로 차이가 나게 되므로 본 군공청(軍功廳)에서 참작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순신의 평가 방식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를 선조는 점차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의심을 키워나가게 되었다.

2. 5개월의 화려한 승리 뒤 5년간의 초라한 전쟁성과

이순신은 1592년 단 5개월 동안 적선 294척을 격침시키는 엄청난 전과를 세웠다.²⁾ 그러나 그 이후 5년간 이순신은 별다른 전과를 세우지 못했다.

<부산포 해전³⁾ 이후 이순신의 전과>

1) 1593년 전쟁 상황

일본군은 부산포 해전의 패배 이후 일본군은 남해안에 12개의 본성과 6개의 지성을 쌓고 병력을 주둔시켰다. 일본수군의 경우, 한산도 대첩⁴⁾ 참패 이후 해전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

2) 부록의 1. ‘역대 전적 표’ 참조

3) 부산포 해전- 1592년 이순신이 일본군의 본국과의 연락을 두절시키고자 왜군의 근거지인 부산 앞바다에서 왜선(倭船) 100여 척을 격파한 전투이다. 일본군의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으나, 조선군 피해는 6명의 전사자와 25명의 부상자뿐이었다.

4) 한산도 대첩- 1592년 적함 70여 척이 견내량에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받은 이순신은 견내량으로 진공했다. 그런데 견내량의 지세는 포구가 좁고 암초들이 많아서 함대로 판옥선(板屋船)을 많이 가졌던 조선에게 불리했으며, 일본군에게는 위급하면 육지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따라서 이순신은 견내량으로부터 일본의 함대를 유인하여 한산도 앞바다로 이끌어내고는, 학익진(鶴翼陣)을 치고 각종 총통을 발사해 적선을 쳐부수었다. 조선 수군은 이 싸움으로 일본 수군의 주력을 크게 대파하여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로 인해 일본 수군은 해전을 완전히 포기했고, 고지대에 성을 쌓은 후 성채와 육군의 지원을 받아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싸움만 하였다. 따라서 일본 수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해안에 축성된 성채와, 이를 보조해주는 일본 육군 병력도 상대해야했다.

1593년 2월, 조정의 명령을 받은 이순신은 원군, 이역기의 함대와 합류하여 웅천을 공격했지만 일본군은 해전을 회피하여 별다른 전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순신은 일본군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육군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러한 판단 하에 새로운 전략 원칙을 세웠는데, 육군과의 연합 공격과 견내량⁵⁾ 차단이 그것이었다. 해전을 회피하고 항구에 틀어박힌 일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이순신은 이 전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10일 웅천 앞바다에 도착하니, 그 고을에 진치고 있던 적들이 포구 깊숙이 배를 감추고 포구를 험난하게 설비하고 소굴을 많이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3도의 수군이 힘을 합쳐서 복병하여 몰래 살피면서 연일 유인을 하였으나, 우리 군사의 위세를 겁내어 끝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칠천량과 가덕도 앞 바다를 왕래하면서 진을 치고 여러 가지 계책을 세워서 기어코 섬멸하려 했으나, 부득이 이 요긴한 길목을 지키는 적을 섬멸한 다음에 양산과 김해의 길을 끊어서 뒤로부터 둘러싸 일 염려를 없게 한 연후에 차츰 부산으로 진격하여 도망치는 적을 막고 섬멸해야 될 것이므로 바다와 육지에서 한꺼번에 공격하려고 ‘급히 여러 장수들에 명하여 병마를 거느리고 곧장 웅천을 공격하도록’ 경상우도 순찰사(김성일)에게 공문을 보내어 재촉하였습니다.” (이순신의 장계, 1593. 2. 17)

1594년 3월 3일, 이순신은 전염병으로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수군을 출진시켰다. 이순신은 약화된 수군 함대를 이끌고 당항포와 주변 해역에서 일본군선 30여척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3월 6일, 일본군 토벌을 금지하는 명나라 장수의 명령을 받고 귀환하였다.

2) 1594년 전쟁 상황

1594년, 선조는 소강상태로 접어든 전쟁 상황에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여러 방면으로 이러한 초조감을 피력했다. 1594년 8월, 선조는 부하장수들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이순신(李舜臣)이 혹시 일을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만약 이순신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륙(水陸)의 모든 장수 중에 순신이 가장 우수합니다.”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서로 대치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형세가 절로 쇠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과 부적이라 하나 왜적이 교체할 즈음에 군사의 형세가 허술할 것이니 공격할 만합니다. 용사를 많이 모아 그 한 부대를 치면 저들이 반드시 와해될 것입니다.”

5) 견내량 좁은 해협과 거센 물길이 흐르며, 암초들이 많고, 육지와 사이에서 바다의 폭이 가장 좁아지는 곳이다. 이러한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주요 해전의 배경이 된 곳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군사는 왜적의 한 부대도 공격할 수 없다.”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늘 공격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군사의 형세가 같지 않다. 저 적들은 여러 해에 걸쳐 훈련을 했는데 우리나라 군사는 모두 가르치지 못한 군사이니 백성이라 이를 수는 있어도 군사라 할 수는 없다.”(‘선조실록’, 1594. 8. 21)

1594년 9월 3일, 선조는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기 위해 이순신에게 밀지를 보내게 된다. 이순신은 당일 기록된 난중일기에 선조의 밀지의 내용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월 초3일[무인] 비가 조금 왔다. 새벽에 밀지가 들어왔는데 「수륙 여러 장수들이 팔짱만 끼고 서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라도 계책을 세워 적을 치는 일이 없다」했지만, 3년 동안 해상에 있어 그럴 리가 만무하다. 여러 장수들과 함께 맹세하고 죽음으로써 원수 값을 뜻으로 날을 보내지만 험고한 곳에 웅거하여 소굴 속에 들어 있는 적이라 경솔히 나가 칠 수는 없는 일이요, 또 더구나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 백 번 싸워도 위태함이 없다」하지 않았는가. 종일 큰바람이 불었다. 초저녁에 불 밝히고 혼자 앉아 스스로 생각하니 국사가 어지럽건만 안으로 건질 길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밤 10시께 흥양이 내가 홀로 앉아 있는 줄을 알고 들어와 자정까지 얘기하다 헤어졌다.”(‘난중일기’, 1594. 9. 3)

1594년 9월 이순신은 육군과 합세하여 일본군이 주둔 중이었던 거제도의 장문포를 공격하게 된다. 이 작전은 원군의 인척이었던 조정의 좌의정 겸 삼도제찰사, 문관 윤두수의 주도로 이루어진 작전이었다. 이곳은 이순신이 전 해 겨울 포위공격을 검토하다가 포기한 곳이었다. 판옥선을 100척 이상 보유하고 있었지만 육지의 성에 웅크리고 있는 적을 몰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전은 비변사에서 결정되어 이순신에게 통보되어졌다. 이순신은 이 날의 일기에 이를 ‘심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조선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일본군은 시종일관 해전을 기피했다. 이순신이 적선 2척을 침몰시키자 아예 육지로 도망쳐버렸다. 이 때문에 이순신은 별다른 성과를 올릴 수 없었다. 지상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조선군은 성채에 틀어박혀 방어에 전념하고 하고 있는 일본군을 수차례 공격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당초 작전에 참가한 인원 자체가 적었던 탓이었다. 윤두수의 무리한 작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1594년 11월, 이순신은 한산도 통제영으로 복귀했다.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작전으로 인해, 조정에서는 작전을 주도한 윤두수를 탄핵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헌부에서는 이순신과 권울을 징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번 거제의 싸움에서는 3도의 병력을 다 동원하였으므로 군세(軍勢)가 매우 웅장

하였습니다. 양굴(兩窟)의 적도는 수백 명이 못 되었으니, 중과의 형세로 말한다면 마치 태산이 새알을 누르는 격과 같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륙(水陸)의 제장(諸將)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각오하고 힘껏 싸우지 않고서…… 도원수 권율(權慄)과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을 아울러 나국(拿鞠)하여 울에 의해 정죄하도록 하소서. (후략)” (‘선조실록’ 1594. 11. 22)

이순신과 권율은 징계 없이 넘어갔으나, 윤두수는 파직되었다. 그러나 윤두수는 얼마 안 있어 군기와 군정을 관장하는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이순신은 1597년 선조의 명으로 조정에 압송될 때까지 별다른 전과를 올릴 수 없었다. 명나라와 일본 간에 진행되던 강화 협상,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한 전력 손실, 일본군의 해전 회피 등의 원인이었다.

<1593년부터 1595년 사이 발생한 조선군과 일본군의 손실>

1593~1595년 사이에, 조선군은 엄청난 전력 손실을 겪게 되었다. 전란으로 인한 대기근과 전염병 탓이었다. 무수한 백성이 굶어 죽었으며, 당연히 군량도 부족해졌다. 굶주린 채 연이어 작전을 펼친 병사들은 작전 중 전염병에 감염되어, 병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조정신료와 선조, 이순신 모두가 알고 있었다. 1593년, 이순신은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다.

“진중의 군사들이 태반이나 전염되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더구나 군량이 부족하여 계속 굶게 되고, 굶던 끝에 병이 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군사의 정원은 매일 줄어드는데 다시 보충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거느린 수군만을 헤아려 보아도 사부와 격군을 합해 원래 6,200여 명 중에 작년과 금년에 전사한 수와 2, 3월부터 오늘까지 병사자가 600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건강하고 활을 잘 쏘며 배도 잘 부리는 토병(土兵)과 포작(鮑作)들이며, 남아있는 군졸들은 조석으로 먹는 것이 2~3홉이라, 궁색하고 고달픔이 극도에 달하여 활을 당기고 노를 젓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순신의 장계, 1593. 8)

1594년, 이순신은 전체 수군 중 사망자가 약 10% 이상, 감염자는 20% 이상으로 전체 병력의 1/3 가량이 감염되었고, 그 중 1/3은 이미 사망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 1년 여간 계속되었다.

소속/구분	감염자(명)	사망자(명)	합계(명)
전라좌도	1,373	606	1,979
전라우도	1,878	603	2,481
경상우도	222	344	566
충청도	286	351	637
합계	3,759	1,904	5,663

(1594년 4월 수군의 전염병 피해 상황, 이순신의 장계, 1594. 4. 20)

조정도 이러한 피해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선조는 혹독한 환경에 처해있는 수군을 위로하기 위해 선전관을 파견했다.

상이 선전관을 보내어 주사(舟師)를 위유(慰諭)하였다. 그 교서는 다음과 같다.

“너희들은 해양(海洋)에 주둔하여 3년 동안을 수역(戍役)에 종사하면서 적과 대치, 시종 혈전을 감행하였다. 바다에 외롭게 떠서 한데[露天]에서 온갖 고초를 겪어왔고 기한이 벌써 지났는데도 오래도록 교체해주지 못했다.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고 추위도 입을 옷이 없었다. 게다가 찌는 듯한 더위와 장기[瘴] 속에서 배멀미도 나고 구토와 설사를 하다 보니 역질이 생겨서 죽는 이가 잇달아 시체가 날로 쌓였구나. 나는 매번 이에 생각이 미칠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애통하였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전쟁이 바야흐로 급박하여, 힘이 미칠 겨를이 없어 차례대로 교체시켜 수고를 고르게 하여 그 몸을 쉬게 해주지 못하였고, 또 의복과 식량을 이어주어 기한(飢寒)을 구원하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가정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근심 속에 원한을 품게 하고 울부짖으며 죽음을 기다리게 하였으며, 모두들 구덩이와 골짜기에 쓰러지게 하였으니, 그 아픈 고통을 생각하면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에 선전관 이계명(李繼命)을 파견하여 군중(軍中)에 나아가 너희들의 근로를 위로하고 너희들의 괴로움을 위문한다. 이어서 본도 감사로 하여금 면포(綿布)와 소금을 헤아려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내가 긍휼히 여기는 뜻을 보이니 너희들은 이를 양찰하기 바란다.” (‘선조실록’, 1594. 9. 21)

1년여가 지난 1595년, 도원수 권율은 수군의 병력손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주사(舟師)를 조사한 성책(成冊)을 상고해 보았더니, 큰 배와 작은 배가 도합 54척이고, 사군과 격군은 도합 4천 1백 9명인데, 병든 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도원수 권율의 장계, 1595. 2. 12)

3. 이중간첩 요시라의 정보, 이순신은 출정해야 하는가?⁶⁾

1596년 12월, 4년간의 명과 일본의 강호가 결렬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재침할 것을 결심한다. 한편 이순신은 원균의 모함과 이중첩자 요시라의 간계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한 것에 불만을 품은 원균은 종종 이순신의 지휘권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곤 했고, 이순신의 인격을 폄하시키기 위해 해전의 정세에 대한 거짓 장계를 조정에 올리기도 했다. 그 때문에 조정에서 이순신의 의심과 불신은 커져갔다. 이순신의 함대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한 일본 함대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어, 당시 일본인들은 조전 침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순신은 필히 제거돼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순신이 이끄는 함대를 전장에서 제거하고자 일본인들은 계략을 마련한다. 일본 병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요시라가 김응서 장군 진영에 파견되어 조선을 위해 첩자활동 하는

6) 부록의 2. ‘인물사전’ 참조

것처럼 꾸민다. 정유년(1597년)에 일본의 이중간첩인 요시라는 오랜 시간 첩자활동을 하면서 가토 기요마사가 대함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는 정보를 김응서 장군에 흘리게 된다. 경상도 병사(兵使) 김응서의 장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달 11일 요시라(要時羅)가 나왔는데 행장(行長)의 뜻으로 말하기를 ‘청정이 7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4일에 이미 대마도에 도착하였는데 순풍(順風)이 불면 곧 바다를 건넌다고 한다. 전일에 약속한 일은 이미 갖추었는가? 청정이 바다를 건너면 비록 심하게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바다 가까운 지경은 틀림없이 약탈할 것이니 나오기 전에 예방하여 간사한 계교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근일에 잇따라 순풍이 불고 있어 바다를 건너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수군이 속히 거제도에 나아가 정박하였다가 청정(淸正)이 바다를 건너는 날을 엿보아야 한다. 동풍(東風)이 세계 불면 반드시 거제도로 향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공격하기가 쉽지만, 만약 정동풍(正東風)을 인하여 곧바로 기장(機張)이나 서생포(西生浦)로 향하게 되어 배가 바다 가운데로 향하게 되면 거제도와 거리가 매우 멀어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서 이 계획이 시행되지 못할 듯하니, 전함(戰艦) 50척을 급히 기장 지경에다 정박시켰다가 좌도 수군과 합세, 결진(結陣)하고 혹 5~6척이 부산의 서로 바라다보이는 곳에서 왕래하면 우리 장수들이 속히 청정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조선(朝鮮)이 너를 원수로 여겨 전함을 무수히 정제하여 좌우도(左右道)에 나누어 정박하고 있으며, 육군(陸軍)역시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네가 나올 날을 엿보고 있으니 삼가서 경솔히 건너오지 말라.」 한다면 청정이 반드시 의심하여 감히 바다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사이에 조선에서 반드시 모든 일을 주선할 것이며, 행장 역시 두 사이에서 도모하게 되어 청정의 목은 비록 베지 못할지라도 상황은 유리할 것이니, 이보다 나은 계책은 없다. 급히 배를 돌려 군대의 위용을 과시하여 간교한 적으로 하여금 머리를 들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피차 다행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청정이 통신하는 일을 훼방할 때 관백(關白)에게 고하기를 「행장(行長)과 조신(調信)이 하는 일은 모두 허사이다. 내가 다시 조선에 나가면 한번의 출격으로 조선을 평정하여 일본에 부속시키고, 왕자(王子)도 사로잡아 태합(太閤) 앞에 바칠 수가 있다. 만일 이번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우리 가족을 다 죽이라.」 하면서 병마(兵馬)를 청하였는데, 관백은 단지 군사만 허락하였으므로 섬으로 물러나 여러 날을 지체하고 있자, 관백이 다시 청정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왜 빨리 바다를 건너지 않는가?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가? 말과 실천이 다르다.」 하였으므로, 속히 바다를 건너고자 하여 급히 대마도에 도착했으나, 만약 조선에서 차단한다는 기별을 들으면 즉시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정의 「조선 지방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어 한번 출격에 평정할 수 있다.」는 말이 거짓이 되고, 행장(行長)의 「조선을 공파(攻破)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적실하게 되어 관백이 반드시 청정의 오산과 망언을 죄줄 것이고 행장은 뜻을 얻게 되어, 강화를 하든 안하든 간에 형세가 매우 편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제일 좋은 계책이다.’ 하였습시다. 들으니 원수(元帥)가 내일 이곳에 당도할 듯합니다.” (김응서의 장계, 1597. 1. 19)

요시라는 가토가 일본에서 조선에 남은 병졸이 없어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큰 소리치고 왔기에 조금 있으면 빨리 싸우라는 질책을 받고 바다로 나올 것이니 그 때 공격하면 된다는 말까지 김응서 장군에게 전하였다. 김응서는 요시라의 말에 동의하고 선조에게 이순신의 출

병을 요청했다.

가토는 한양을 최초로 점령한 일본 장군이었으며, 왕자들, 즉 선조의 아들들을 포로로 끌고간 원수이기도 했다. 선조는 가토의 머리가 절실히 원했다. 게다가 가토 기요마사는 대규모 일본군 원병들과 함께 오고 있었다. 선조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전력이었던 이순신에게 가토가 바다를 건너올 때 그를 제거하라고 이순신에게 출동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요시라가 말한 지역은 암초가 많아 매우 위험한 곳이었다. 그 곳에서 왜군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또, 이순신은 이중첩자한테서 넘어온 정보를 신뢰하지 못했고, 망망대해에서 적을 기다리는 것을 자살행위로 여겨 출정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고니시 유키나가는 다시 한 번 반간계를 펼쳤다. 고니시와 접촉하고 있던 경상도 제진 위무사 황진은 선조에게 다음과 같은 서장을 올렸다.

“1월 12일, 청정 관하의 배 1백 50척과 휘하의 배 1백 30척이 비를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서생포(西生浦)로 향하고 있는데, 행장(고니시 유키나가)이 송충인(宋忠仁)에게 말하기를 ‘조선의 일은 매양 이렇다. 이런 기회를 잃었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선조실록’, 1597. 1. 22)

가토 기요마사의 상륙소식과 황진의 서장을 접한 선조는 대노했다. 선조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한 이순신에게 매우 강력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행장(行長)이 김응서(金應瑞)에게 청정(淸正)을 도모할 계책을 일러주었는데, 유성룡(柳成龍) 등이 적의 말을 경솔히 듣다가 그들의 계책에 빠질까 싶다며 경솔히 움직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천하에 용렬한 나라이다. 지금 장계를 보니, 행장 역시 조선의 일은 매양 그렇다고 조롱까지 하였으니, 우리나라는 행장보다 훨씬 못하다. 한산도(閑山島)의 장수는 편안히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었다.”

“이번에 이순신에게 어찌 청정의 목을 베라고 바란 것이겠는가. 단지 배로 시위하며 해상을 순회하라는 것뿐이었는데 끝내 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제 도체찰사의 장계를 보니, 시위할 약속이 갖추어졌다고 한다.”하고,

상이 한참동안 차탄(嗟歎)하고는 길게 한숨지으며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조실록’, 1597. 1. 23)

이 사건은 선조가 결정적으로 이순신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조는 단 5일 만에 원균을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겸 경상도 통제사로 임명하여 수군을 지휘하게 했다. 이순신은 아직 파직되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준비 작업이었다. 이듬해 4일, 사헌부는 이순신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 사헌부는 선조에게 이순신에 대한 처벌을 건의했다.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은 막대한 국가의 은혜를 받아 차례를 뛰어 벼슬을

올려 주었으므로 관직이 이미 최고에 이르렀는데, 힘을 다해 공을 세워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바다 가운데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가 이미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군사는 지치고 일은 늦어지는데 방비하는 모든 책임을 조치한 적도 없이 한갓 남의 공로를 빼앗으려고 기망(欺罔)하여 장계를 올렸으며, 갑자기 적선이 바다에 가득히 쳐들어 왔는데도 오히려 한 지역을 지키거나 적의 선봉대 한 명을 쳤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뒤늦게 전선(戰船)을 동원하여 직로(直路)로 나오다가 거리낌없는 적의 활동에 압도되어 도모할 계책을 하지 못했으니, 적을 토벌하지 않고 놓아두었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배반한 죄가 큼니다. 잡아오라고 명하여 울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 (‘선조신록’, 1597. 2. 4)

선조는 이례적으로, 단 이틀 만에 신속한 답변을 내놓는다. 이순신을 서울로 압송하라는 것이었다. 선조는 김홍미에게 다음과 같이 전교했다.

“이순신(李舜臣)을 잡아올 때에 선전관(宣傳官)에게 표신(標信)과 밀부(密符)를 주어 보내 잡아오도록 하고, 원균(元均)과 교대한 뒤에 잡아올 것으로 말해 보내라. 또 이순신이 만약 군사를 거느리고 적과 대치하여 있다면 잡아오기에 온당하지 못할 것이니, 전투가 끝난 틈을 타서 잡아올 것도 말해 보내라.” (‘선조신록’, 1597. 2. 6)

선조의 분노는 이순신을 파직하고, 하옥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선조는 이순신을 처형할 생각이었고, 그것을 신하들에게도 명확하게 밝혔다.

“이순신(李舜臣)이 조정을 기망(欺罔)한 것은 임금을 무시한 죄이고, 적을 놓아주어 치지 않은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이며, 심지어 남의 공을 가로채 남을 무함하기까지 하며 ‘장성한 원균(元均)의 아들을 가리켜 어린 아이가 모공(冒功) 하였다’고 계문(啓聞)하였다.’ 방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기탄함이 없는 죄이다. 이렇게 허다한 죄상이 있고서는 법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율(律)을 상고하여 죽여야 마땅하다.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금 형벌을 끝까지 시행하여 실정을 캐어내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신들에게 하문하라.” (‘선조신록’, 1597. 3. 13)

이순신의 투옥

선조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이순신은 1597년 4월 11일, 통제사 직에서 해임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4월 19일, 이순신은 투옥되었다. 전쟁영웅이 사형을 기다리는 중죄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조선 수군은 그 이후 단 5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사실상 전멸했다.

[부 록]

1. 역대 전적

출전	해전명칭	날짜	장소	참전세력 비교		일본 장수 소속	조선 측의 전과		비고
				조선	일본		군선	인명/기타	
제 1 차 출전	옥포 해전	1592. 5.7	거제도 옥포만	전함 28 협선 17	30여척	도도 다카토라, 호리우치	대선 13, 중선 6 등 합 26척	사살 다수	서전 완승, 경상우도 5척 격파
	합포 해전	1592. 5.7	웅천 합포	상동	5척	불명	대선 4, 소선 1척 분멸	사살 다수	왜선 도주 추격전
	적진포 해전	1592. 5.8	고성 당동만	상동	13척	불명	대선 9, 중선 2 등 13척	양미 노획	도합 44척 분멸
제 2 차 출전	사천 해전	1592. 5.29	사천 선창	전선 26 협선 20여척(추정)	30여척	불명	대선 13, 중선 6 등 26척	사살 다수	거북선 참전, 이순신 부상
	당포 해전	1592. 6.2	당포 선창	상동	21척	가메이 코레노리	대선 9, 중선 12 등 21척	사살 다수	
	당향포 해전	1592. 6.5	당향포 포구	전선 51 협선 50여척(추정)	26척	가토 기요마사	대선 9, 중선 12 등 21척	사살 다수	유인전, 연합함대 형성
	당포 해전	1592. 6.2	당포 선창	상동	21척	구루시마 미치유키	대선 9, 중선 2 등 7척	적장 사살 사살 다수	도합 67척 분멸
제 3 차 출전	한산도 대첩	1592. 7.8	한산도 양중	전선 59척 협선 50여척(추정)	73척	와키사카 야스하루	대선 35, 중선 17등 59척	340여 급, 사살 다수	와키사카 야스하루 14척으로 탈출
	안골포 해전	1592. 7.10	안골포 포구	상동	42척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	대선 9, 중선 2 등 7척	적장 사살 사살 다수	도합 79척 분멸
제 4 차 출전	부산포 해전	1592. 9.1	부산포 일대	전선 81척 협선 92척 이상	대소 470여 척	일본 수군 본대	30여 척, 100여 척 분멸	사살 다수	도합 130여 척 격파

2. 인물사전

(1) 도요토미 히데요시 (1537. 3. 17- 1598. 9. 18)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센고쿠 시대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에 활약했던 무장, 정치가이며 봉건 영주로이다. 그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도요토미라는 성을 하사받기 이전에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 자신의 가신(家臣)이기도 했던 일본의 무장 가토 기요마사는 그의 6촌 여동생의 아들이다.

(2) 가토 기요마사 (1562. 7. 25- 1611. 8. 2)

가토 기요마사는 1592년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제 2군 장수로서 휘하장수들을 이끌고 제 1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는 조선의 동북쪽 함경도로 진격로를 선택하여 북진하였고, 전쟁 초반 조선의 왕자인 임해군과 순화군을 포로로 사로잡은 적이 있다. 그 후, 1597년 정유재란 때 제 1군사령관으로 다시 150여척의 일본군을 이끌고 조선을 재침하도록 명령받았다. 정유재란 시에는 주로 전라도 지역을 공격하였다. 그는 울산에 지구전을 펼칠 수 있는 성을 쌓고 울산 성 전투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에게 포위당하여 식량과 물 부족으로 병사의 대다수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전하게 되었다.

(3) 고니시 유키나가 (미상- 1600)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의 장수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는 데 협력해 그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의 중군을 담당하여 선봉으로 서울을 거쳐 평양까지 함락시켰으나, 조선의 관군 및 의병 그리고 명의 구원군에 패배하고 퇴각했다. 이후 명과의 강화회담에 힘썼으나 결렬되었으며, 같은 왜장 가토 기요마사와 심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유재란 때 다시 군대를 이끌고 진격했으나 순천에서 조선군에게 패하고 후퇴했다.

(4) 요시라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에 소속된 무관으로 조선과 명에서 파견한 사신들의 접대와 통역을 담당하였다. 1594년 경상 우병사의 진(鎭)에 드나들면서 거짓 귀순하면서 첩자 활동을 벌였다. 그 뒤 1597년 가토 기요마사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을 모함하여, 이순신의 하옥에 원인을 제공한다.

(5) 원균 (1540- 1597)

원균은 일찍이 군문에 들어와 경흥군 조산보만호(종4위)였는데, 반년 만에 특진하여 전라도좌수사(정3위)로 발령이 났다. 사간원에서 조산보만호로 있을 때 근무평가가 하(下)였는데 전라도좌수사에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하여 부임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었고 부령부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 후 임진왜란 2개월 전인 1592년 2월에 경상우수사로 특진하여 가배포에서 73척의 군선을 지휘하게 되었다.

(6) 김응서 장군 (1564- 1624)

무과에 급제해 1588년 감찰이 되었으나 집안 문제로 파직되었고 임진왜란 때 다시 등용되어 제1차 평양 전투에서 대동강을 건너려던 일본군을 막아 평안도방어사가 되었다. 1593년에는 명나라의 이여송(李如松)과 함께 조명 연합군을 이끌고 제4차 평양 전투에서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이후에는 도원수 권율(權慄)의 명령으로 도적들을 소탕하고 1595년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승진했으며, 군관 이홍발을 부산에 잡입시켜 일본군의 동태를 살폈고 1597년 일본의 간첩 요시라에 의해 매수되어 이순신(李舜臣)을 모함하기도 했다. 1603년 충청도병마절도사 자리에 올랐으나 부하들을 학대해 다시 파직되었고 1604년에 다시 기용되었다.

[질문]

1. 선조가 이순신의 전공평가 방식을 반대한 이유는 Feedback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
2. 조선 수군이 5년 간 전쟁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선조와 조정 신료들은 이순신과 수군이 게을러졌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선조와 조정 신료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어떤 Feedback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
3. 요시라의 정보를 입수하고 선조와 조정 신료들은 조선 수군의 출정을 명령하였다. 입수한 정보를 잘 반영하여 내린 결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선조와 조정 신료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정보를 주고받는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 오류가 발생하였는가?
4. Case를 읽으면, 이순신과 선조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발생 원인은 선조 개인의 잘못(오해)인가, 선조가 아닌 누구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의 문제인가?